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로’의 포괄적 의미 기술 방안 연구

탁 수 연

### Abstract

**Tahk, Sooyeon.** 2017. 9. 30. **A Study on broad grammatical description of ‘-lo’ for learners of Korean.** *Bilingual Research* 68, 209-24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lement the pre-existing descriptions of the grammatical form ‘lo’ in textbooks and grammar books for learners of Korean by describing it at a general level and provide them with the explicit knowledge. First, it is found that the focus of grammatical description of the meaning of ‘lo’ in those books tends to be placed heavily on the particular meanings at a specific level, the meanings are not described in lucid or orderly manners, and, above all, there are no general description provided. In order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form from a broader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oughts of the Korean linguistic community, i.e. the social context of it, instead of its linguistic context, then examine why or when they use it. Based on the analysis of descriptions of its meaning in the books, I hypothesized that the salient semantic feature of the form is that it presupposes the concept of multiple possibilities. To prove this, I examined some idiomatic expressions, in which ‘lo’ cannot be replaced by any other form. The common factor is that the concept is contained or presupposed as the common background knowledge of the speakers. They share the common belief that there are several possibilities in how or why something occurs, several places to go, several kinds of an object and so on. Therefore, I decided that ‘-lo’ is used when the speaker expresses that its preceding noun is one of several possibilities, without it being stated. In the end, I provided more in-depth grammar information regarding ‘-lo’.  
**(Sangmyung University)**

**【Key words】** grammatical description(문법기술), form-meaning connection(형태-의미 연관성), salient semantic feature(두드러진 의미 특성),

generalization(일반화), socio-cultural context(사회문화적 맥락),  
linguistic community's background knowledge(언어공동체의 배경  
지식)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고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 항목으로 제시되는 ‘-로’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서 제시된 기존의 여러 개별적인 용법들에 대한 기술에 더하여 그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기술을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법 항목 ‘-로’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Noun(으)로’, ‘-(으)로’ 또는 ‘으로/로’라는 표제어로 제시된다. 조사, 접미사 또는 첨사로 분류되는 ‘-로’는 그 의미 또는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sup>1)</sup>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 문법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sup>

의사소통중심의 교수·학습을 목적으로 개발된 한국어 통합 교재와 문법서에서 나타나는 ‘-로’와 관련된 기술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용법은

- 
- 1)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 항목으로는 다루지 않는 ‘-로’의 단어 파생 기능은 주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로’의 사용은 전형적인 분포(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와 비전형적인 분포(이중 목적어 구문의 ‘-을/를’을 대체하는 경우와 ‘-적’과 기타 명사나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Michael Swan(2007: 6-7)은 ‘must’나 ‘과거형’과 같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구조들(polyvalent items)에 대해 ‘여러 다른 기능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간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의미’와 ‘사용’을 구별하는 것은 다소 인위적이며 항상 작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기능에 초점에 두는 논의는 아니므로 ‘의미기능’ 또는 ‘기능’ 대신 ‘의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김지현(2013), 한상미(2014), 이가인(2014)의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체로 그것의 소수의 용법 외에는 여러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상세히 기술된 반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단일한 형태 ‘-로’의 다의적 용법<sup>3)</sup>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학습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유용한 [방향], [도구]와 같은 의미들은 ‘방향 표현하기’, ‘도구 표현하기’와 같은 문법 교육 항목으로 제시되며 전 학습 과정에 걸쳐 ‘-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의미들이 계속 도입된다. 그런데 여러 개별적 의미들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어휘론적인 측면에서의 이질성’(이정애, 2002: 23)이 존재하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수많은 다양한 의미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 요소, 일관되는 점 또는 개념적인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모든 용법을 일일이 학습하고 기억해야 하므로 인지과부하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형태초점(Focus on Form)<sup>4)</sup>의 교수를 위해서도 보다 명시적인 지식 또는 입력 자료가 필수적이다. Long·Robinson(1998)에 따르면 형태초점 교수란 ‘언어적 코드 자질 특성’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습득하기 어려운 요소들의 두드러진 자질’을 자각하게 하는(Johnson: 2004, 김희숙·문은주(역), 2011: 83) 방법이라고 한다. Ellis(2006: 102)는 우연적인 형태초점의 접근법(an incidental focus-on-form approach)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명시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문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로’의 이해와 표현에서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궁극적인 목적 하에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서의 기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점을 달리하여 포괄적인 의미 기술을 시도하고자 한

3) 이는 선행명사(구)에 ‘-로’가 결합하여 여러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뜻한다.

4) 본고는 형태초점의 교수법에 관한 논의는 아니며 그러한 방식의 교육을 위해 교사가 가져야 할 지식 또는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식, 입력 자료에 관련한 논의임을 미리 밝혀둔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명시적 교수의 효과에 관해서는 이해영(2015)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다. 명시적인 입력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개별적인 의미 또는 용법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문법 형태로서의 ‘-로’의 두드러진 의미 특성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먼저,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로’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그것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허용(2001)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는지를 교수·학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로’는 [이동의 방향], [귀착], [자격], [수단], [이유]를 표현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다고 가르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 또한 다양한 개별적인 의미들을 열거한 것이다. ‘-때문에’와 ‘-로’의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는 ‘-로’가 이유를 나타내는 정도가 약하다 (p.385)는 주장이지만 그것은 ‘-로’ 자체의 두드러진 의미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지는 않는다. 한국어 교재에서 ‘-로’의 제시와 활용 방식을 검토한 이양혜(2005)에서도 ‘-로’의 기본적, 필수적 교육 항목의 범위를 [재료], [도구], [수단], [원인], [자격], [방향], [결과]의 의미들로 설정하여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는데 여러 의미들을 포괄하는 의미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sup>5)</sup> 박동호(2007: 179)는 ‘-로’ 그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였으나 교육 내용 구축 방안에 초점을 두어 공기하는 선행 명사의 유형과 서술어의 유형을 명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위의 논의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입력 정보로서 ‘-로’의 다의적 용법뿐 만 아니라 파생 접사로서의 기능이나 다른 형태와 바꾸어 쓰이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즉, 여러 용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를 논의하지는 않았다.

5) 이전 연구인 이양혜(1996)는 ‘-로’의 통합격으로 [변성]의 의미를 설정한 바 있다.

그간 한국어 통사론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는 의미를 상세히 분류한 후 여러 의미들을 통합하는 대표 격 또는 통합 격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중심적 의미를 제시하기도 하였다.<sup>6)</sup> 그러나 대표 격을 설정하려는 것은 어휘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수형도(tree diagram)상의 여러 하의어를 포괄하는 상의어를 설정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고 설정된 대표 격도 여러 개별적인 의미 중의 하나라고 본다. 중심적 의미 또한 여러 개별적인 의미 중의 하나일 뿐이며 주변적인 의미와 비교해 볼 때 구체성(구상성)과 추상성으로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임홍빈(1974)은 ‘-로’는 {+선택적} 의미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p.148). 이 주장은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 반영되어 ‘-로’가 ‘선택’의 의미를 갖는다고 기술되어 왔다. 이는 선행 명사(구)와 서술어에 따라 생겨나는 관계의 의미들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것의 ‘원초적이고 적극적인 의미 특성(p.143)’에 초점을 둔 것이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의미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로’는 행동주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 예측불허의 사태나 그 밖의 순간적인 행동, 비의지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경우<sup>7)</sup>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로’의 포괄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으나 그 필요성을 시사하는 논의를 찾아 볼 수 있다. 권소정(2015: 57)은 부사

6) 대표 격을 설정한 이광호(1984), 최호철(1995), 이양혜(1996), 이익섭(2005), 임동훈(2005), 권재일(2012)의 논의에서는 유사하게 [수단/도구/방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양혜(1996)는 [변성]으로 설정하였다. 중심적 의미를 설정한 연구인 박정운(1999)과 구분관(2012)에서는 각각 [경로]와 [재료/도구]를 중심적 의미로 파악하였다.

7) 박정운(1999: 405)에서는 ‘지난 홍수로 다리가 무너졌다.’등을 예로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이광호(1984), 황화상(2012) 등에서도 ‘+선택적 의미 특성’이라는 기술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사실, 임홍빈(1974: 149)에서도 ‘가물로 곡식이 타 죽는다.’라는 예에 대해서 행동주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불가해한 예라는 언급은 있었으나 이러한 예에 적용되는 또 다른 의미 특성을 부여하거나 이것도 포함하는 더 일반적 의미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에 나타난 ‘-로’ 구성 어휘와 그 결합 양상을 살핀 결과, 격조사로서의 기능만을 갖는다는 기술로는 ‘-로’ 구성 어휘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함을 보인다 하였다. 파생 접미사라는 기능은 격 조사의 예외적 쓰임이라 보기에는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공시적인 생산성도 높다고 주장하였다. ‘-로’의 부사격 조사로서의 쓰임 외의 쓰임이 예외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드문 경우가 아니라는 견해는 이러한 쓰임도 포괄하는 적극적인 의미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양혜(2003: 12)는 ‘-로’의 격조사 기능이 접미사의 기능으로 변화한 이유가 양자 간의 관련성이나 유사성에 기인한 언어 화자들의 활용 인지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인지의 내용으로 두 형태소가 홀로 쓰이지 않는다는 형태적 기능적 공통점과 ‘-로’가 의미적 조사이고 접사도 어휘적 의미 요소를 가진다는 점이 유추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바로 그 의미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로’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형태와의 비교를 통해 ‘-로’의 두드러진 의미 특성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대부분 대체적 형태 ‘-에’와 비교하였는데 연구들 간 그 기술에 사용된 술어가 상이하기는 하나 의미적으로는 유사하다.<sup>8)</sup> 본고의 입장은 그와는 다르므로 이에 대해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로’의 의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나 문법 기술에서의 균형성, 충족성의 중요함을 언급한 논의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양

8) ‘-로’와 ‘-에’의 의미 차이에 관한 몇 가지 연구에서 밝힌 의미 차이를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이양혜(1995: 372)에서는 ‘-로’는 경로성이 보다 강하고 ‘-에’에는 장소성이 강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양혜(2005: 29)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선행어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낼 때는 그것이 ‘목적지나 도착지’이면 ‘-에’를 ‘순수 방향’이면 ‘-로’를 쓴다고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다. 황화상(2012: 352)은 ‘이동의 방향’과 ‘이동의 도달점’의 차이로 기술하였으며 김현지(2013: 242)는 두 형태의 교체 구문과 관련하여 ‘-에’는 ‘정태성 혹은 불연속성’을 실현하며 ‘-로’는 ‘방향 혹은 과정’을 의미하며 ‘연속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명희(2014: 412)는 주격 조사 용법 기술과 관련하여 무조건 의미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오경숙(2007: 153)에서도 문법 항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최대한 구체적이면서도 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앞선 연구에서 ‘-로’의 개별적인 의미들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다의적 용법과 접사로서의 용법을 아우르는 두드러진 의미 특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이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타당하고 충족한 기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그 결과,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서도 ‘-로’의 의미 기술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3. 문법 기술 방식에 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Batstone(1994)의 문법 기술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 간의 ‘-로’와 관련된 의미 기술 내용을 검토하여 포괄적인 의미 기술을 해 보고자 한다.

Batstone(1994)은 문법 기술은 항공기를 타고 상공에서 아래를 조망하는 것에 비유하였고 기술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고도의 차이에 비유하였다. 기술 방식은 크게 ‘더 일반적인 차원(more general level)’과 ‘더 구체적인 차원’(more specific level)에서의 기술로 구분되며 이 둘의 차이는 하나의 척도 또는 연속체 상에서 ‘포괄적인 이상화(broad idealization)’와 ‘실제 예문의 상세한 정보(finier detail of the actual instances)’의 차이이다(p.8).<sup>9)</sup>

이 논의는 하나의 범주와 관련해 여러 다른 차원 또는 관점에서 여러 다른 문법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Batstone이 제시한 도식<sup>10)</sup>

9) Figure 1에 따르면, ‘더 일반적인 차원’의 기술은 ‘포괄적인 문법 형태나 범주’를 설명하는 것이며 ‘더 구체적인 차원’의 기술은 ‘어휘를 포함한 문법 형태의 개별적인 예’를 설명하는 것이다. 각각의 예로는 ‘주어-동사-목적어, 능동태와 수동태’와 ‘He was hit by a stone.’를 제시하였다.

을 따라 문법 기술의 관점들과 각 관점 별 수동태에 관한 의미 기술 내용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Batstone의 문법 기술에서의 관점과 관점 별 기술의 예

관점	기술 대상의 의미	기술의 내용
더 일반적인 차원 (3만 피트 상공)	특정 형태의 의미에 관한 일반화	누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 가장 자주 쓰인다(Azar, 1985: 125, Batstone 1994: 16 재인용). 행동주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경험주를 주어로 만든다.
덜 일반적인 차원 (1만 피트 상공)	사용 맥락 상 한정된 예에서만 나타나는 의미	수동태는 어떤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That electricity bill's not been paid yet. (그 전기 요금은 아직 지불이 안 되었네.) 위의 문장은 그 전기 요금 내야 되는데 난 안 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예 (지면: Ground Level)	매우 구체적이고 맥락에 따른 의미 (개별적인 사용에서 드러나는 의미)	① The wall was <u>demolished</u> . (철거되었다/헐렸다) ② Cedric is <u>overwhelmed</u> by your kindness. (압도된다) 등등

위에서 보듯, 수동태에 관한 ‘더 일반적인 차원’의 기술은 수동태가 언제 혹은 왜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특정한 상황들에서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덜 일반적인 차원’에서 기술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수동태가 종종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할 때 쓰이므로 비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의미를 기술해 주는 것은 학습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atstone의 문법 기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것은 하나의 형태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여러 다른 기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와 같은 기

10) 이는 두 번째 도식 Figure 2를 뜻한다. Batstone은 문법 기술 방식의 차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유사한 도식을 제시하였는데 Figure 2에서는 ‘덜 일반적인 차원’이라는 관점이 추가되었다.

준을 적용하여 ‘-로’와 관련한 기존의 문법 기술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물론 ‘-로’와는 범주가 다른 영어 수동태의 모든 관점 별 기술의 예가 ‘-로’의 의미 기술에도 평행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고에서 시도하는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기존의 다양한 의미와 여러 용법을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기술이라는 것도 ‘-로’가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폭넓게 기술하는 것, 즉, 일반화는 이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Batstone(1994: 8)은 문법 연구자가 명확하고 경제적인 설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이는 ‘적정한 정도의 이상화(a fair degree of idealization)’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단순성이나 명확성은 좋은 문법 규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진실성을 다소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11)</sup> 반면 문법이란 하나의 정확한 체계적인 틀은 아니나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는 안정감을 준다고 한다 (Batstone, 1994: 7).

위에서 살펴 본 문법 기술에서의 관점의 구분은 언어 의미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언어 사용의 맥락의 구분과도 맞닿아 있다. ‘-로’의 다양한 개별적 의미들은 언어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의미<sup>12)</sup>인데 다른 맥락에서도 ‘-로’의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실제 발화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개별 화자를 포함하여 한국어 언어 공동체(한국어 화자들)는 ‘-로’

11) Michael Swan은 좋은 문법 규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진실성(truth), 사용 제약에 대한 설명(limitation), 명확성(clarity), 단순성(simplicity), 친숙한 개념의 사용(familiarity), 학습자 필요와의 관련성(relevance)을 제시하였는데 명확성과 단순성을 위해 진실성이 훼손이 될 수도 있으나 규칙은 그것이 기술하고 있는 현실과 유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Thornby, 1999:32 재인용).

12) ‘-로’의 구체적인 용법에서 표현되는 [수단], [방향] 등의 개별적인 의미들은 엄밀히 말하면, 특정 문장 내에서의 의미, 예를 들면, 명사구 논항 ‘버스’ 또는 ‘동쪽’과 같은 언어의 의미와는 다른 ‘본래부터 존재하는 언어를 기술하기 위해 추가로 도입한 논리형식 언어(김종현, 2009: 251)’인 메타언어, 상위 언어이다. 그러나 그 의미들도 구체적 언어적 맥락에 따라 결정되므로 언어적 맥락에서의 의미로 보았다.

를 언제 또는 왜 사용하는지 기술해 볼 수 있다. 소수의 대화 참여자들만이 아닌, 언어 공동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 또는 배경지식이 무엇인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으로까지 확대하여 거시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차원에서 기술한다면 포괄적인 의미 기술이 될 것이다.

#### 4. ‘로’에 관한 기술의 양상 및 분석

의미란 복합적인 개념이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법 기술에서의 차원 또는 관점 구분, 그리고 맥락 구분을 적용하여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서 ‘-로’의 의미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에서의 문제점과 아울러 포괄적인 의미 기술을 위한 시사점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재는 대표성과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의 통합 교재 4종 (영어판)과 해외 대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1종을 포함하여 총 5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sup>13)</sup> 교재에 따라서는 단계별로 설명 언어가 다르기는 하나 초급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영어가 사용되었다.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문법서는 교재만큼 다양하지 않은데 인지도가 있는 국내 출판 2종, 해외 출판 3종으로 총 5종의 문법서를 검토하고자 한다.<sup>14)</sup>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의 문법 기술 양상을 통해 특정 한국어 문법 교육 항목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한국어 교육기관은 각기 다른 교육

13) 이들 교재는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Integrated Korean* 순으로 살펴졌다.

14) 문법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 Using Korean-A Guide to Contemporary Usage*, *Basic Korean: A grammar and Workbook* 순으로 살펴기로 한다.

과정, 교수요목, 교수법, 보충 자료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교사는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해 수업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교사나 학습자들이 접할 수 있는 문법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어느 정도는 가늠하게 해 주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4.1. 기술의 전반적인 경향

한국어 교재들에서 나타나는 표제어는 ‘noun(으)로’, ‘-으로’, ‘으로/로’ 등과 같이 단독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형태가 결합된 복합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급 단계에서는 별도의 의미 기술 없이<sup>15)</sup> 표제어와 예문만이 제시된 교재도 있다. 전체적인 기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그것들도 표제어 목록에 포함하였다. <표 2>는 단독 형태와 복합 형태를 구분해서 각 교재에서의 출현 순서에 따라 개별적인 의미들을 목록화한 것이다.

<표 2> 한국어 교재 별 ‘-로’의 의미

교재	단독 형태	복합 형태
(가)	[이동의 방향], [도구·수단·방법]	[결정·약속] (-기로 하다) [이유] (-로/기로 유명하다) [증거·근거] (-로 알 수 있다) [원인] (-로 인해) [자격·신분] (-로 꼽다) [관점] (-로/에서 보다)
(나)	[방향], [수단, 원인·이유, 지위], [선택한 것으로의 교체], [도구·수단·방법·재료·원료]	[(화자)의 선택] (-로 하다’) [원인·이유] (-로 인해) [근거·기준] (-로 봐서는) [도구·수단·방법] (-로써/음으로써) [원인·이유] (-로 말미암아)

15) 이 경우, 일반적인 의미 분류 방식을 따라 본 연구자가 의미를 구분하였다.

(다)	[장소·방향], [수단·방법]	[결정·약속] (-기로 하다) [원인] (-로 인해) [방법·수단] (-음으로써)
(라)	[방향, 재료·자료]	[계획·결심·결정·약속] (-기로하다) [원인] (-로 인해) [변화의 결과] (-로 나타나다/드러나다/ 보이다) [수단·도구·방법] (-로써/음으로써)
(마)	[수단·도구], [방향], [결정·결심], [교체]	[원인] (-로 인하다/로 인해) [방향] (-로 몰고 가다) [자격·속성] (-로 여기다, -로 쳐주다, -로 지칭되다) [추측의 내용] (-로 추측하다) [구성] (-로 이루어지다) [도구·수단·방법] (-음으로써) [결말] (-로 이어지다) [근거·기준] (-로 보나 -로 보나)

위와 같이, 교재에 따라 상세함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전반적으로 개별적 의미들만 매우 상세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기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나 ‘-로’ 자체의 독자적인 의미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개별적인 의미들이 상호 연관됨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의미들을 아우르는 두드러진 의미 특성에 대한 기술,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기술이 누락되어 있다. 기술의 초점이 구체적인 용법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의미들에만 편중되어 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재라는 특성 상, 그 안에 출현하는 개별적인 의미들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학습자들에게 기본적인 표현으로서 제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항목들이다. 모든 교재들에서 [방향]과 [수단·도구]의 의미들이 대부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의 용법으로 제시되는 것도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항목들을 계속 열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학습자들이 ‘-로’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충족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문법서들에서도 아래와 같이 한국어 교재들과 유사하게 구체적인 용법에 대한 설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방향]과 [수단·도구]의 의미들이 우선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3> 한국어 문법서 별 ‘-로’의 의미

문법서	단독 형태	복합 형태
(가)	[장소·방향], [도구·수단·방법], [재료·원료], [변화의 결과], [자격·신분·명성], [원인·이유], [시간적 범위]	[극단적인 상황에 이름] (-로까지) [출발점·근원·시작시점] (-로부터) [지위·신분·자격/그 입장·편에 처함] (-로서) [수단 강조] (-로써) [원인·이유] (-로 인하다)
(나)	[방향], [방법·도구], [원인·이유], [자격], [경유·과정·변화]	[경유·통과] (-로 해서) [자격] (-로서) [수단·방법, 이유] (-로써/음으로써)
(다)	[방법·도구·수단], [방향], [근원·이유], [방식과 양상, 변화의 과정의 끝점] [신분·능력·지위·자격]	[신분·능력·지위·자격] (-로서) [도구·수단] (-로써)
(라)	[방향], [변화], [선택], [지위·신분], [수단], [원인], [시간], [방식과 양상]	[지위·신분] (-로서) [원인] (-로 인해, -로 말미암아) [경유] (-로 해서) [근거] (-로 봐서, -로 보나 -로 보나)
(마)	[수단], [방향], [선택], [상태의 변화], [원인]	

그러나 문법서에서는 교재들에서 출현하지 않는 개별적인 의미 또는 다른 의미 분류 방법들이 나타나며 단일 형태로도 쓰이고 복합 형태로도 쓰이는 경우들(‘-로서’, ‘-로써’, ‘-로 인해’, ‘-로 해서’)이 따로 구분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

문법서 (가)의 [장소·방향]과 [시간적 범위], 문법서 (나)의 [경유·과정·변화], 문법서 (다)의 [근원]과 [방식과 양상, 변화의 과정의 끝점(the

manner of an action or the end-point of a process of change)], 그리고 문법서 (라)의 [시간], [방식과 양상(manner)]은 한국어 교재 내의 기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술어이다. 이 중 일부 술어들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기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문법서 (다)와 (라)의 [방식과 양상]이라는 술어는 포괄적인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것은 몇몇 개별적인 의미들(예: [도구], [경로], [방향], [결말], Ihm 외, 2001: 156)의 어휘 계층 구조에서의 상의어로 볼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차원에서 기술한 의미라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문법서 (다)의 [근원]과 [방식과 양상, 변화의 과정의 끝점]이라는 술어들은 ‘-로’가 사건이나 사태의 시작과 결말, 그리고 그 중간 과정 모두를 표현하는 데 두루 쓰일 만큼 구체적인 의미들이 실로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로 인해’, ‘-로 해서’, ‘-로써’, ‘-로서’는 별도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중 ‘-로서’와 ‘-로써’는 모든 문법서에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들이 ‘-로’에 다른 요소가 첨가된 형태와 첨가되지 않은 두 형태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쓰인다는 다소 복잡한 현상에 주목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문법서 (나)는 ‘-로써’가 ‘-로’보다 ‘수단’의 뜻이 더욱 분명하다(백봉자, 2006: 277)고 기술하였는데 ‘-로써’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적인 의미들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16)</sup>

16) ‘-로’의 여러 개별적 의미들은 언어적 맥락에서 추론을 통해 해석되는 것이므로 간혹 의미의 파악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의미의 강조만이 아니라 의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화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요소들이 첨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구했다.’에서 ‘써’의 사용은 [수단]인 죽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다음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광화문으로 와라.’라고 할 때 맥락을 통해 중의성이 해소될 수도 있겠으나 화자가 선행 명사가 [목적지]가 아니고 [정유지]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경유해서’의 의미를 가진 ‘-로 해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 4.2. 기술의 타당성

이 절에서는 ‘-로’의 의미에 관한 기술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이들은 문법 기술로서의 타당성 또는 충족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거나 본고의 입장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다. 그 중 하나는 임흥빈(1972)의 ‘{+선택적} 의미특성’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대체 가능한 유사한 문법 형태인 ‘-에’와의 의미 차이에 대한 기술이다. ‘선택’의 의미는 한국어 교육 자료들에는 도입되어 왔으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이라는 시각들이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입력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에’와의 의미 차이에 대한 기존의 기술 내용들에서 ‘-로’의 두드러진 의미 특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그 의미 차이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4.2.1. ‘선택’의 의미<sup>17)</sup>

다음 <표 4>에서 한국어 교재들에서 ‘선택’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17) ‘선택’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뭔가를 선택할 경우에는 물체라든가 행위라든가 하는 가시적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교실 수업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4> 한국어 교재 내의 ‘선택’의 의미와 관련된 기술

교재	기술 내용	메타 의미
(나)	<p>• It [‘으로/로 하다’] is used with a noun and has a meaning of your choice. (2-1 3과 3항) 선물은 케이크로 하는 게 어때요? 책 제목을 ‘한국어와 함께’로 했어요.</p> <p>• It comes before an action verb indicating change to the selection of an exchanging object. In the case of transferring to bus #2727 among variety of bus numbers, you would say ‘272’번 버스로 갈아탔어요. Its use is restricted to verbs with meaning related to exchange such as ‘갈아타다, 갈아입다, 바꾸다; to transfer/to change (clothes), to exchange’, etc. (2-1 권 5과 단원 1)</p>	<p>[선택]</p> <p>[교체]</p>
(라)	<p>• It indicates one choice (up/down, right/left side, front/back, this side/that side/that side over there, etc.) among various possibilities, and must be used with a verb of movement, such as 가다, 오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들어가다 or 나가다. (1권 5과)</p>	<p>[방향]</p>
(마)	<p>• Two uses of (으)로 are (i) means or instrument (중략) and (ii) direction. ‘toward, to (a place) as in the examples above. In both uses, (으)로 indicates a choice made from several possibilities. (Beginning 1, L7).</p> <p>1. The particle (으)로 is used to indicate that the item preceding it has been chosen from several candidates as in the examples. (1) and (2). (1) A: 신이 너무 작은데요. B: 그럼, 260으로 드릴까요?</p> <p>2. (으)로 can also mean ‘into’ in ‘changes into’ as in the examples (3) and (4). (중략) (3) A: 이건 좀 큰데요. B: 그럼 작은 사이즈로 바꾸세요.</p> <p>3. Other meanings of (으)로 are (a) direction: ‘to, toward, as in (중략) (b) means ‘with, in, using’ as in ... (Intermediate 1, L2)</p>	<p>[수단/도구 방향]</p> <p>[종류의 하나]</p> <p>[교체]</p> <p>[방향], [수단/도구]</p>

이탤릭체로 구별해 놓은 부분에서 보듯, 세 교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선택’이라는 술어를 사용하였다. 선행 명사(구)가 ‘여러 가능성’, ‘여러 후보’ 또는 ‘다양성’(“various possibilities”, “several possibilities”, “several candidates”, “variety”) 중에서 선택된 하나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재 (마)는 교재 (나), (라)와는 다른 기술 방식을 보이고 있다. ‘선택’의 의미를 구체적인 차원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기술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단/도구, 방향], [종류의 하나], [교체], [방향·수단/도구]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선택’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몇 가지 용법에서는 공통 요소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재 (마)의 기술 내용도 보완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체로 ‘-로’의 사용에서 ‘선택’의 의미라는 것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몇몇 개별적인 의미들을 표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sup>18)</sup>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라도 항상 ‘선택’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방향]을 표시하는 경우라도 ‘발사체가 바다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라면 그 사건은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는 행동주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을 표현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추상적인 술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 즉, ‘선택’의 의미란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기술된 포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개별적 의미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의미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급에서 [종류의 하나](‘-을/를’ 대체 사용)라는 개별적 의미를 추가할 때 이에 대한 간략한 보충 설명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중급 단계이기는 하나 이 형태는 이중 목적 구문이라

18) 물론 교재(가)의 ‘-기로 하다’에서의 [결정]과 같은 개별적인 의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는 특별한 통사구조에서 첫 선행 명사가 생략된 유형이다. 그런데 교재 기술 내용 중에 이중 목적 구문이나 생략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고 부사어 구문의 여러 예시들도 혼재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이 ‘260으로 드리다’를 ‘260을 드리다’라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재 (나)에서는, ‘선택’의 의미가 [선택]이라는 개별적인 의미로 제시된 후에 그 의미가 [교체]라는 개별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또는 그 경우에 한해서만) 표현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로 하다’에 대해 기술할 때 처음으로 ‘(화자의) 선택(your choice)’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그 전에 [방향], [수단, 원인·이유, 지위]라는 의미를 도입할 때는 이 의미가 기술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전의 의미들과의 연관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로 하다’는 ‘하다’가 ‘먹다’나 ‘사다’ 등의 대동사로 쓰인 경우라면 ‘-로’는 [종류의 하나]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데 쓰인 것이며 ‘하다’가 ‘결정하다’ 등의 대동사로 쓰인 경우라면 개별적 의미를 [결정]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개별적 의미를 나타내든, ‘선택’의 의미를 개별적 의미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택’의 의미를 개별적 의미의 하나로 제시한 후 다른 의미들은 모두 배제하고 특정한 하나의 개별적 의미하고만 연관된다고 기술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동일한 의미를 두 다른 차원에서 기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재 (라)에서는 [이동의 방향]이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도입되면서 ‘선택’이라는 술어가 사용될 뿐, 그 이후 다른 용법과 관련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 교재 집필자들이 ‘선택’의 의미를 도입하는 것은 그들의 풍부한 교육 경험을 통해 일반적 의미로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의미지만 그 정보가 학습자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하였듯이, 기술 방식을 달리하여, 어떤 개별적 의미들의 경우, 행동주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공통적 의미

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후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면 타당한 기술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택’이라는 의미를 어느 시점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교재 개발자들 사이에서 사전 논의와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그 의미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로’의 개별적 의미를 처음 제시할 때부터 함께 도입하고 교재 내에서든 교실 수업에서든 특정한 몇몇 용법에 대해서만 그 의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한 방식은 그 정보가 일부 개별적인 의미들에 한정되며 또한 특정한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통 요소로 추출되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적어도 일부 개별적인 의미들의 상호 연관성을 어느 정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문법서들은 ‘선택’의 의미를 개별적인 의미의 하나로 목록화하였다.

<표 5> 한국어 문법서 내의 ‘선택’의 의미와 관련된 기술 내용

문법서	기술 내용	메타 의미
(라)	<p>• Choice</p> <p>어느 음식점으로 정할까? 아침은 빵으로 때우자. 일회용으로 사자. 없던 일로 하지. (p.256)</p>	<p>[결정] [수단] [종류의 하나] [간주]</p>
(마)	<p>• Selection</p> <p>Salesman: 무슨 사이즈로 드릴까요? Customer: 스몰로 주세요. Notice that by using 으로, the sales man implies that there are more than one size. (pp. 91-92)</p>	<p>[종류의 하나]</p>

그런데 해당 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법서 (라)의 ‘choice’는 여러 개별적 의미의 하나라기보다는 [결정], [수단], [종류의 하나], [간주]라는 여러 개별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로 본 것이다. 그

러므로 두 차원의 기술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문법서 (마)는 [종류의 하나]를 표현하는 경우에만 ‘선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문법서는 보충 설명에서, 상황적 맥락을 제시하고 화자가 ‘-로’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사이즈가 있다는 것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기술하였는데 이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유용한 기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내포적인 의미가 다른 용법들에서도 드러난다는 설명이 누락된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선택’의 의미를 도입하는 데 있어 여러 개별적 의미들 사이의 연관성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언급하기 어려운 것은 부분적으로는 국어학 연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서만 ‘선택’의 의미를 갖는다고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기술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4.2.2. 대체적 형태의 쓰임과의 비교

어떠한 문법 형태의 두드러진 의미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문법 형태의 의미와 비교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에’와 ‘-로’의 의미 차이를 기술한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다음은 교재 (마)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표 6> 한국어 교재 내의 ‘-에’와의 의미 차이 비교

교재	기술 내용
(마)	<p>• 에 is used to indicates a specific destination, whereas (으)로 indicates a general direction.</p> <p>이번 여름 방학에 서울에 갑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 서울로 갑니다.                      I am going to Seoul (over other possible cities I can go to)                      (<i>Beginning 1, L7</i>)</p>

위의 설명은 두 예문의 선행명사 ‘서울’이 각각, ‘구체적 목적지(specific destination)’와 ‘대략적 방향(a general direction)’임을 나타낸다는 것인데 그 차이가 ‘specific’과 ‘general’의 차이인지 ‘destination’과 ‘direction’의 차이인지 불분명하다.

그 차이가 [목적지]와 [방향]의 차이라면, 것처럼 형태도 다르고 각각 표현하는 명제적인 의미도 다르다면, 특별히 양자를 비교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예문에서 ‘서울’은 주어 또는 행동주 ‘I’가 가는 방향일 뿐 목적지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위의 기술 내용만 보아도 다른 후보 도시들이 있는데 다른 도시들에는 가지 않고 서울에 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형태 자체의 의미 차이는 선행 명사나 서술어의 의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므로 둘은 [목적지]와 [방향]이라는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왼쪽에 있다’라는 표현에서 선행 명사 ‘왼쪽’은 방향의 의미를 전혀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쪽’은 엄연히 방향을 지시한다. <표 2>와 같이 한국어 교재의 설명에서는 ‘-로’는 [방향]을 표시하는 데만 사용된다고 기술하였지만 본고는 ‘-로’도 ‘-에’도 [목적지]를 나타내는 데도 [방향]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된다고 본다.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도 그렇게 기술해야 하며 이와 함께 각각은 자체적으로 또 다른 의미 특성이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문법서들도 대체적 형태 ‘-에’와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두 형태의 차이를 [목적지]와 [방향]의 차이로 보았다. 중복을 피해 두 문법서의 기술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lt;표 7&gt; 한국어 문법서 내의 ‘-에’와의 의미 차이 비교

문법서	기술 내용
(가)	<p>1. [장소나 방향을 뜻하는 명사에 붙어] 그 지점이나 방향을 목적지로 하거나 그 곳을 통하여 이동하거나 향함을 나타낸다.</p> <p>&lt;보충 설명&gt;</p> <p>(중략) ①과 같이 ‘로’가 목적지를 나타내는 경우 ②처럼 ‘에’로 바꿔 쓸 수 있으나, ③과 같이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는 ④처럼 ‘에’로 바꿔 쓸 수 없다. 그러나 (중략) ①과 같이 ‘로’를 쓰는 경우에는 여러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 장소를 향함을 나타내는 반면, ②와 같이 ‘에’를 쓰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목적지인 경우만을 나타낸다.</p> <p>이는(중략)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p> <p>우리는 봄가을로 여행을 간다. (○)</p> <p>우리는 봄가을에 여행을 간다. (○) (pp. 468-471)</p>
(라)	<p>In the examples below, -(으)로 is appropriate but -에 is not, because the precise destination point is not clear.</p> <p>아파트로 이사 갔다. (ok)    아파트에 이사 갔다. (not acceptable)</p> <p>(p.256)</p>

문법서 (가)는 처음에는 ‘그 지점이나 방향을 목적지로 하거나’, ‘-로’가 목적지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기술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여러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 장소로 향함을 나타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도 앞서의 ‘구체적 목적지(a specific destination)’와 ‘대략적 방향(a general direction)’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차이점이 선택의 가능성 여부에 있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앞서의 ‘서울’의 예와 마찬가지로 문법서 (라)의 이사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때 그 상황은 ‘정확한 목표 지점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목적지가 확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목적지]를 표현하는 데 ‘-로’가 쓰인 것은 그것이 여러 목적지 중의 하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할 때는 보통 여러 후보 지역이나 주거 형태를 고려하기 마련이다.

‘-로’가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자. ‘-에’와는 다르게 행동주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쓰인다는 설명인데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는 일반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봄가을로’는 ‘봄가을에’와 어떻게 다르다고 기술할 수 있을까. ‘봄가을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기보다는 여행하는 하나의 유형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하다’(Choo·Kwak, 2008; 257)라는 표현에서도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언제 선선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다기보다는 선선한 날씨의 한 가지 유형 또는 낮 시간대와 일교차가 큰 날씨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밤낮으로’도 단순히 밤과 낮이라는 사건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화자가 동일한 사건이나 사태라도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에’ 또는 ‘-로’가 쓰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종현(2009: 263)에 따르면 다른 대안적 표현이 가능한 경우, 화자가 그 중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임의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문화적 배경이나 인지 심리적 발원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한다. 명제적인 의미가 같더라도<sup>19)</sup> 화자의 의미, 화자의 의도 등에 따라 다른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에서 기존의 한국어 교육 자료를 검토, 분석한 결과, ‘-로’는 화자가 ‘다수의 가능성(multiple possibilities)’을 전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선택’이 아닌 ‘다수의 가능성’에 방점을 두어야 함이 시사된다. 이러한 두드러진 의미 특성은 언어적인 맥락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어적인 맥락에서만 살피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피야 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실제 발화 상황을 상정하고 언어 사용자인 화자나 언어 공동체가 어떤 생각 또는 의도를 가지고 ‘-로’를 사용하는

19) 이양혜(2005: 292)는 ‘-로’와 ‘-에’를 대치하여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화자의 의미가 다르므로 명제적인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화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로’의 포괄적인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용법이나 ‘선택’이 일어나는 일부 상황적 맥락에만 초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언어 공동체의 사고 속에 배경 지식으로서 존재하는 다수의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5. ‘-로’의 포괄적인 의미 기술

앞 장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토대 위에서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로’의 포괄적인 의미를 기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수의 가능성이라는 내포된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관용적인 표현들에서 다수의 가능성이라는 ‘-로’의 내포된 의미와 그 내포된 의미 때문에 ‘-로’가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개별 화자에 의해 ‘-에’ 등의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음을 살펴보겠다.

다음 속담들은 특정 발화의 화자를 포함하여 언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된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다.

- (1) ㄱ.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ㄴ. 팔은 안으로 굽는다.
- ㄷ.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1-ㄱ)은 집단 내 의견이 지나치게 분분하다 보면 자칫하면 일이 비정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한다.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배가 정상적으로 가야 할 곳은 다른 장소(바다 또는 강)라는 언중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1-ㄴ)의 뜻은 모르는 사람들보다 가족이나 지인들을 더 챙기는 등 그들에게 정이나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미 내부자와 외부자 또는 나의 인맥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언중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1-ㄷ)은 진실을 작은 꿈수로 은폐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부적절한 미봉책으로 적당히 해결하려고 행동함을 꼬집어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그 이면에도 손바닥이 아닌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거나 그 무슨 방법으로든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이와 같이 관용적인 표현에서 ‘-로’가 쓰이는 경우, 공통 요소로 드러나는 것은 ‘-로’의 선행 명사와는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언어 공동체의 인식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로’를 통해 암시적으로 표현된다.

그 밖의 굳어진 표현들에서도 ‘-로’의 사용 조건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로 갈아타다’는 통상 갈아타는 교통수단이나 노선이 여러 가지라든가, ‘-로 구성되다’는 어떠한 내용 혹은 물체의 구성이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바뀌어 쓰이는 경우가 없다. 개별 화자도 선행명사가 나타내는 바가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대체하지 않고 ‘-로’를 사용한다.

다음 황화상(2012: 354)의 예문에 대해서도 화자의 발화 맥락을 상정해보면 왜 각각에서 ‘-로’와 ‘-에’가 사용되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보다 명확해진다.

- (2) ㄱ. 여기에 있던 책 어디로 갔지?  
 ㄴ. 여기에 있던 책 어디에 뒀더라?

(2-ㄱ)과 같이 책을 찾는 상황은 통상 문제의 책이 가 있을 후보 장소가 여럿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로’가 적절한 형태로 선택되어야 한다. (2-ㄴ)은 화자가 자신이 분명히 어떤 곳에 책을 두기는 하였는데 (여기 있던 책을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그 하나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경

우는 화자의 생각이 문제의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가 적절한 선택이다.

은유적 표현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에서도 ‘-로’가 바뀌어 쓰일 수 없다. 화자의 의도는 명예가 바닥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뿐이므로 명예가 발사체나 공처럼 이리저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전제되지는 않는다.

임흥빈(1974: 149)은 ‘가물에 곡식이 타 죽는다.’와 ‘가물로 곡식이 타 죽는다.’ 둘의 차이를 의식역(意識域)의 차이로 보았다. ‘-로’가 ‘-에’보다 화자의 의식역이 넓다고 주장한다. 이는 화자가 선행 명사외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물로’는 그 이면적인 의미까지 풀어서 말해 보면 ‘곡식 피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뭄 때문에’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뭄 때문에’의 앞에 오는 내용은 화자와 청자 모두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식에 속하므로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위자가 누군지에만 초점을 두어 ‘가뭄에 의해서’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다거나 다른 원인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면 ‘-에’의 사용이 적절할 것이다.

결국, 문법 형태들의 대체적인 쓰임은 적절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관용적 표현은 화자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는 경우지만 동일한 명제적 의미 즉, 동일한 상황이나 사건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형태들 또는 표현들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화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도 청자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 맥락에서는 어느 한 쪽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일 수 있다. 황화상(2012: 356-357)의 주장대로 두 개의 후보가 전제되고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동일한 상황에서 화자에 따라 ‘북한산에 갈까? 도봉산에 갈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북한산으로 갈까? 도봉산으로 갈까?’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상황 또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어디로 가는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로’가 더 자연스럽게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에서 상대방의 견해를 물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도 어떠한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로’에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이면적인 의미는 어떤 경우에는 화자의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 (3) ㄱ. 그 환자는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ㄴ. 그 환자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ㄱ)은 정보만 전달할 뿐인데 반하여 (3-ㄴ)은 다른 견해들도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그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거나 확실한 정보라도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거나 할 때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수의 가능성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개념이다. 개념의 정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공통성과 보편성 그리고 관념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로’의 이면에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태의 원인, 정도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도구, 방법, 경로, 방향, 목적지, 도달점, 결말 그리고 물건의 종류 등등이 여러 가지 일 수 있다는 반복적인 세상 경험에 바탕을 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 다수의 가능성이란 한국어 화자들의 보편적인 생각 또는 관습화된 개념이므로 ‘-로’가 반드시 여러 가지 물건이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20)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에 관한 정의로는 ‘개념이란 어떤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의 공통적 성질에 의해 이들 대상을 통합시킨 관념이며 우리의 지각과 인지 과정에서 나타난 개체적인 표상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 결합시켜 만든 통일체이다(이성범, 1999: 21)’와 ‘개념이란 의식을 통해 객관적인 세계에 대해 주관적인 존재, 즉, 사람이 갖는 보편화된 관념이다(이성범, 2001: 28)’를 제시할 수 있다.

‘지난 홍수로 다리가 무너졌다.’의 경우, 발화 당시, 홍수 외에 부실공사나 지진도 붕괴 원인으로 의심되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또한 화자가 ‘젓가락으로’라고 말하는 것도 식사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 발화의 상황에 다른 도구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물리적 세계의 현상을 기초로 하지만 그 사용은 사용자의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한국어 언어공동체가 ‘-루’가 아닌, ‘-로’라는 부호를 사용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하겠으나, 그 구성원들이 외부 세계에서 발견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성에 근거하여 하나의 기호로 통일하여 표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로’는 보통 부사어의 기능을 하지만 이중 목적어 구문도 [종류의 하나]를 표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을/를’이 대체가 가능한 것도 통사적 규칙의 엄격성보다는 의미적 상호 연관성이 우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서는 거의 ‘-로’가 선행 명사(구)에 결합하는 형태에 대해서만 기술하였기 때문에 본고도 그 점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으나 ‘-로’가 접미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가능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예컨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또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까지 넓혀서 거시적 관점에서 ‘-로’의 포괄적인 의미를 밝혀 보았다. ‘-로’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용 자료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 용법에서의 다양한 개별적인 의미 기술은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입력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는 화자가 선행 명사(구)가 나타내는 것이 ‘다수의 가능성’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때 사용한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로’는 명사(구)와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지만, 때로는 대상의 한 종류를 명시하기 위해 ‘-을/를’ 대신 쓰이기도 하며 여러 견해의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해 인용문의 ‘-라고’ 대신 쓰이기도 한다.

셋째, 주어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선택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로’를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여러 개별적인 의미 중 어느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거나 그 뜻을 강조할 때 ‘-로 인해’, ‘-로 해서’, ‘-로써’, ‘-로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해와 폭넓은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그 포괄적인 의미의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본고는 구체적인 용법을 처음 도입할 때 함께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학습 초기에 포괄적인 의미도 함께 제시된다면 이후 다른 의미들과 용법이 추가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통해 ‘-로’의 이해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밖의 위의 기술 내용들도 학습자와 교사가 심도 있는 문법 지식을 갖추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6. 맺음말

본고는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서의 ‘-로’와 관련한 문법 기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 의미를 기술하였다. ‘-로’의 의미 기술에서 포괄적인 의미 기술이 누락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Batstone의 문법 기술의 차원 구분에 따라 연구 대상 자료에서 ‘-로’의 의미 기술 양상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보완점과 시사점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로’를 사용

하는 한국어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로’와 관련된 언어적 배경 지식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조망하였다. 그 결과, ‘-로’에 내포된 포괄적인 의미가 ‘다수의 가능성’임을 주장하였다.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속담과 덩어리 표현과 같은 관용적인 표현들을 살폈다. 또한 그 포괄적인 의미는 대체적 형태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의미 특성이므로 화자가 다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발화할 때 (물론 반드시 그렇게 발화해야만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로’가 적절한 형태가 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 이루어진 ‘-로’의 포괄적인 의미 기술 내용은 한 형태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포적인 의미에도 균등하게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내재화된 화용’(이준호, 2015: 229) 또는 ‘부호화된 화용’(Swan, 2007: 4, 이준호, 2015: 229 재인용) 정보의 하나로서 가치가 있으리라 본다.

또한 한국어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왜 또는 언제 어떠한 형태를 사용하는지 탐구하는 것, 즉, 언어 사용과 관련된 그들의 배경 지식을 살피는 것은 그들의 인지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로’의 의미를 살핀 본 연구는 인지언어학적 접근 방법에 기초한 논의는 아니나 표현·이해의 과정을 논의의 중심에 부각시키는 인지의미론(신명선, 2010: 88)에서의 논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sup>21)</sup> 향후 다른 문법 형태들의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의미들에 대한 세세한 기술과 아울러 사회문화적 맥락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문법 형태의 포괄적인 의미를 조망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 의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1) 임지룡 외(2014: 5)에 따르면 인지언어학은 언어의 구조와 기능을 사람의 몸과 마음의 특성, 그리고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상관성 속에서 해명하려는 언어학이라고 한다.

## <참고 문헌>

- 권소정(2015). ‘(으)로’ 구성 어휘 결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현(2009). 언어의 이해. 태학사.
- 김현지(2013). 조사 사용의 경향성 분석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 언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숙·문은주(역)(2011). 외국어 습득 원리의 이해. M. Johnson. 2007. *A Philosophy of Second Language Aquisition*, Yale University. 한국문화사.
- 박정운(1999). 한국어 도구격 조사의 다의어 체계, <언어> 24권 3호, 한국언어학회. 405쪽-425쪽.
- 박동호(2007). 한국어 문법의 체계와 교육 내용 구축 방안, <이중언어학> 34호, 이중언어학회. 159쪽-184쪽.
- 신명선(2010). 인지 의미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법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어 의미학> 31호, 한국어의미학회. 77쪽-107쪽.
- 양명희(2014). 한국어 교사를 위한 문법 교육 내용 기술의 원칙, <어문론집> 59호, 중앙어문학회. 407쪽-432쪽.
- 오경숙(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항목 기술에 대하여, <시학과 언어학> 13호, 시학과 언어학회. 143쪽-165쪽.
- 이가인(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으)로’의 의미 기능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성범(1999). 언어와 의미. 태학사.
- 이성범(2001).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 이양혜(1995). 조사 ‘-로’의 대치 가능성, <우암사려> 5호,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53쪽-373쪽.
- 이양혜(1996). 격조사 ‘-로’의 통합격 설정, <국어국문학> 15호,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73쪽-298쪽.
- 이양혜(2003). 우리말 접사의 기능 변화 연구-‘-에/로’와 ‘-니/아(어)’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교육> 18호, 동아대학교 국제교육원. 57쪽-78쪽.
- 이양혜(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조사 ‘로’ 교육, <이중언어학> 29호, 이중언어학회. 269쪽-295쪽.
- 이정애(2002). 국어 화용 표지의 연구. 월인.
- 이준호(2015).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화용 정보 기술에 대한 고찰, <이중언어학> 61호, 이중언어학회. 215쪽-240쪽.
- 이혜영(2015). 한국어 화용 교육에서의 명시적 교수 가능성과 교실 적용, <한국어교육> 26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7쪽-266쪽.
- 임지룡·김명환·김억조·김옥녀·서혜경·송현주·이주익·임태성·정병철·정수진·최진아

- (2014). 문법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 임흥빈(1974). {로}와 選擇의 樣態化, <어학연구> 10권 1호, 서울대학교. 143쪽-159쪽.
- 한상미(2014).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담화에 나타난 조사 오류 연구, <한국어교육> 25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1쪽-310쪽.
- 황화상(2012). 국어 조사의 문법. 지식과 교양.
- 허용(2001). 부사격 조사에 대한 한국어 교육학적 접근, <이중언어학> 19호, 이중언어학회. 365쪽-390쪽.
- Batstone, R.(1994)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s, R.(2006). Current Issues in the Teaching of Grammar: An SLA Perspective, *TESOL Quaterly*, Vol. 40. No. 1, TESOL. 83-107.
- Swan, M.(2007). *Grammar, Meaning and Pragmatics: Sorting out the Muddle*, *TESL-EJ* Vol.11-2.
- Thornbury, S.(1999). *How to Teach Grammar*. Harlo: Longman.
- <한국어 교재>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1-6권. 교보문고.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1-6권. 문진미디어.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1-6권.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1-6권. Epress.
- KLEAR,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High Advanced 2*. University of Hawai'i Press.
- <한국어 문법서>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 Ihm, H., K, Hong & S. Chang(2001).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Choo, M. & H. Kwak(2008). *Using Korean-A Guide to Contemporary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on, A. S.(2009), *Basic Korean: A grammar and Workbook*. New York: Routledge.

탁수연(Tahk, Sooyeon)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길 133, 03086  
전화번호: 02-764-7825  
팩스: 02-764-7826  
전자우편: sytahk@gmail.com

접수일자: 2017년 7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9월 7일  
게재 확정: 2017년 9월 18일